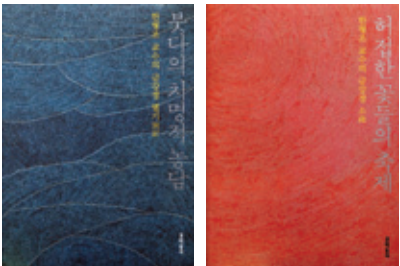


# “불교, 딱딱하지 않아 좋다”

## 한형조 교수의 모던하고 경쾌한 '금강경 강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체서서는 이미 시중에 널리고 널려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사진)는 <금강경>을 통해 철학과 종교를 뛰어넘는 좀 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을 발간했다. <금강경>은 지금도 절에서 늘 독송되는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경전이다. 한형조 교수는 영기와 과감을 각오하고 총횡무진 <금강경>을 자유롭게 풀어냈다. <허접한 꽃들의 축제>인 <붓다의 치명적 농담>과 <금강경 소>인 <허접한 꽃들의 축제> 두 권으로 구성됐다. <붓다의 치명적 농담>이 <금강경>에 전하고자 하는 근본정신을 저자가 친절히 '별도의 해설'을 통해 쓴 입문서라면, <허접한 꽃들의 축제>는 <금강경> 원문과 이에 붙은 다양한 해석을 새로운 번역으로 펼친 책이다.

불교는 어렵다. 적어도 한형조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불교는 왜 어려운가? 한 교수는 다섯 가지 이유를 꼽는다. 첫째는 불교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본다. 바로 시각이 문제다. 둘째는 다양성이다. 불교는 고타마 붓다 이후 2500년에 걸쳐 대승불교, 반야, 유식, 화엄, 천태, 정토, 선 등 여러 가지 갈래로 그 의미가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런 불교의 흐름에 어느 것이 진짜 불교인지 가우뿔한다.

셋째는 언어다. 어느 것이 진짜 불교인지 의심스러워 경전으로 눈을 돌리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한 기본이다. 경전만 해도 무려 8만4000권이며, 이들은 모두 지금 쓰이지도 않는 한문으로 돼 있다. 거기다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같은 말은 그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전해 주지 못한다. 넷째는 경험이다. 지식이란 결국 경험으로 확인돼야 생명력을 얻는다. 육조혜능은 <육조단경>과 <금강경 구절>을 통해 즐기게 강조했다. "입으로만 경전을 외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하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표현이다. 불교는 구경(究竟)이 아니라 방편(方

便)이다. <금강경>에서도 말하듯, 불교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 부분은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다. 한형조 교수는 "이래서 나는 불교가 좋다. 비 억압과 관용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더 이상 근엄하거나 딱딱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 교수는 '깨달음은 이미 여기와 있다'고 말하며, 공(空)사상을 강조한다. 불교사의 다양한 굴곡을 질긴 실 하나로 꿰어가며, 소송 아비달마의 분석에서 대승 유식의 정신분석과 중국의 변증논리, 화엄의 연기적 세계관, 선의 단도직입이 결국 '단하나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또한 노장의 세계관과 12세기 삼교통합의 체계인 주자학까지 곁들여 한국의 원효의 삶과 사상을 통해 불교의 진면목을 알려 준다. 이밖에도 서양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리고 소펜하우어와 니체의 사유는 물론, 실화와 신화, 일상의 에피소드들을 엮어 내며 독자적 불교 해석의 경지를 열고 있다.

한형조 교수는 모던하고 경쾌하게, 불교를 '종교'가 아닌 '인문'으로써 접근한다. 제도나 관습, 집단의 논리를 떠나 오로지 불교가 알려주는 '인간학'에 집중한다. 책은 불교의 한문 뒤에 지친 사람들, 화두라는 일초적입



(一超直入)의 협준에 한숨 쉬던 사람들에게 가끔의 단비와 같다. 유머와 깊이를 다 갖춘 책은 드물다. 불교가 어려웠던 이들이라면, 불교의 도저한 깊이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붓다의 치명적 농담·허접한 꽃들의 축제 한형조 지음/문학동네 4만1800원 이은정 기자

# 세끼 밥먹는 것 자체가 행복

## 국내 최초 미얀마 난민수용소 '누포캠프'를 가다



닭이 울고 개가 짖는 마을.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누구도 그 밖을 나갈 수 없는 마을. 사방 2km안에 2만여 명이 살지만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없이 살아가는 곳.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밀림 지역에 존재하는 이곳을 사람들은 미얀마 난민수용소 '누포캠프'라 부른다.

오래 전부터 이곳에 도움을 손길을 주고 있는 영봉 스님을 따라 미얀마 난민수용소 누포캠프를 찾은 저자 임연태는 국내 최초로 그곳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했다.

우리가 하루 세끼를 먹는 일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누포캠프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세끼는커녕, 잘 먹어야 두 끼가 고작이다. 식사는 아체를 넣어 풀인 말걸 죽이 전부다.

3월 22일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매일 진행되는 '화요 열린 강좌'에서 저자 임연태는 이곳에서 느낀 감동의 순간들을 이렇게 회고했다. "사는 것에 염증이 났을 때, '누

포캠프'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을 먹고 산다는 것만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해줬다." 이어 저자는 "누포캠프의 사람들은 밥보다 그리움을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저자식을 두고 홀로 미얀마를 탈출해 불교학교를 설립한 50대 후반의 교사는 미얀마에 두고 온 처자식을 그리워 매일 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말라리아로 부모를 잃은 13살의 소녀는 아버지의 친구 집에 동생들을 맡겨 놓고 홀로 미얀마를 탈출했다. 이틀간 맨발로 정글을 걸어 힘겹게 누포캠프에 도착했지만,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엔 항상 동생들이 남아있다.

2007년 미얀마에서는 갑자기 사찰지원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미얀마 스님 4명은 경찰서로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승복까지 벗겨 내뱉기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스님들은 시위운동에 나섰지만, 결국 1250명의 스님들이 옥고를 치루며 많은 고통을 시달려야 했다. 어쩔 수 없이 망명길에 오른 누포캠프의 스님들은 옥고를 치루는 스님들을 항상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한다. 이들의 그리움이 어떻게 밥과 비교가 될까.

정글 깊숙이 위치해 있는 누포캠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를 정



가난의 흔적에서도 밝게 웃는 누포캠프의 아이들.

도로 오지에 위치한다. 때문에 저자는 "누포캠프"란 단 네 글자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책을 발간하게 된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그리움은 곧 희망이다. 희망이 있기에 그들은 다시 삶의 위안을 삼고 밝게 살아간다.

누포캠프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자였다. 현재 60%가 개신교로 개종한 상태.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누포캠프를 찾아와 아이들의 학비,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불교신자인 이 아이들이

개종한 것은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공부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다"라며 "한편으로 우리 한국 승단은 많은걸 반성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저자는 영봉 스님과 함께 현재 한 사람당 1구씩 매일 아이들을 위해 1만원 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책의 수익금은 미얀마 난민수용소의 교육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신한 110-317-048400(임종범) 철조망에 걸린, 희망임연태 지음/클리어마인드 1만4500원 이은정 기자

# '자타카'로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시켜볼까

## 자타카 영한대역 '행복의 샘' 완간 기본단어만 알아도 읽을 수 있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무수한 과거를 여러 보살로 살며 수행 했던 과정을 다룬 <자타카>가 어린이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 키워줄 수 있는 책으로 발간됐다. <행복의 샘>은 <지혜의 샘> <자비와 샘>에 이은 아이들을 위한 영한대역 <자타카>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다.

<자타카>는 부처님이 전생애 원숭이, 코끼리, 물고기, 곰, 나무 등으로 태어나 진리를 깨닫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 과정이 담겨있다. 구두쇠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아들과 똑같이 변신해서 지혜를 발휘한 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딱 하나 갖고 있던 삼마저 버린 사람, 아무도 죽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현명한 곰, 명석한 판단으로 남편과 아들과 오빠를 모두 구한 여인 등 자타카 547편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꼭 들려 주고 싶은 재미난 부처님 이야기 16편을 <행복의 샘>에 담았다.

<자타카>는 어른을 비롯해 아이들에게 현대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를 알게끔 한다.



영어의 기본 문장 위주로 돼 있고, 우리말 번역문은 영문의 의미와 구조를 살렸다. 기본적인 단어만 알고 있으면 애써서 단어를 찾아보지 않아도 번역문과 비교해 가며 영어 단어 뜻을 유추할 수 있다. 책에는 심신업, 삼보, 중도, 사정근, 발원, 보시, 공양 등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어원을 밝히면서 설명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교 용어의 영어 표현도 함께 익숙해지도록 했다. 동서양의 전래동화에 지루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라면 <자타카> 이야기는 흥미롭고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행복의 샘 | 쿠루네고다 피아티싸 영역 | 이추경 옮김 | 불광출판사 | 1만원 이은정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허	교림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천태소지관	천태 지자대사	운주사
5	선의 지혜	성엄선사	탐구사
6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7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8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움살
9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원영	불광출판사
10	마음속 부처 찾기	지안	조계종출판사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佛祖正脉 불조정맥**  
Throne Disciple of the Buddha and Patriarch

**Hwa-da 话头 화두**

중,영,한 3개국어판! 영,중,한 3개국어판!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과 정맥전법계를 온전하게 갖춘 출간 예정. 최초의 불조정맥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여여비보서 대희대사 배후시에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지심귀명례 공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SET : DVD 26개 52장

**원순 스님의 몽산범어 DVD**

원순스님 몽산범어 : DVD 9장 100,000원

구입 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법보시용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황금의 불탑 미얀마!!!**

5월 12일 미얀마로 떠나는 완전일주 8일 (짜이티오 철야기도 가능) 1,90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 짜이티오

5월 24일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6일

지장도량-관음도량 5월 23일 구화산 | 보타산 | 황산 6일 1,140,000원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 하늘열차 티벳 8일 6월 7일 (요금 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 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 010-8442-4444 (상담) / 010-3534-8366 (농장)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